

中國駐光州總領館期刊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총영사관 소식지

2010年



JOURNAL OF THE CONSULATE-GENERA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GWANGJU



- 중국 주요뉴스
- 총영사관 소식
- 중국 경제무역 정보
- 특집 2010상해EXPO
- 중국 스페셜
- 중·한 교류
- 한국에 있는 중국인
- 중국의 매력
- 총영사관 공고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총영사관 2010년 7월 편역·발행

<http://gwangju.china-consulate.org/kor/>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중국 주요 뉴스



2010년 4월 14일 오전 7시 49분, 중국 청해성 옥수현에 강도 7.1의 강진이 발생하였다. 4월 25일 17시까지 사망 2220명, 실종 70명, 부상 12,000명의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지진발생 후,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이번 지진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해외방문 중인 후진타오(胡锦涛) 국가주석은 조기 귀국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조속히 귀국하여, 우리 국민과 함께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국무원 원자바오(温家宝) 총리는 출국 일정을 미루고 지진발생 다음날 바로 재난현장에 도착하여 구조작업을 지휘하였으며, “한가닥 희망이라도 보인다면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중국정부는 4월 21일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선포하고 전국 각 지와 중국 해외공관에도 조기를 게양하였다. 옥수지진 발생 후, 전 중국국민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면밀히 주시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재난구조에 참가하였으며, 재난지역에 아낌없는 지원이 잇달았다.

국제사회도 잇달아 옥수지진에 대하여 중국에 깊은 위문을 보냈다. 한국 이명박 대통령은 지진발생 당일 후진타오 국가주석에게 위로전문을 보냈고, 한국 정부는 100만 달러의 긴급지원 자금을 제공하였다. 국제여론은 이번 지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높이 평가하였다.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5월 28일에 서울에 도착하여, 한국을 정식 방문하고 제3차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였다.

당일, 원총리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고, 두 정상은 양국관계 및 지역과 국제사회 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솔직하고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중·한 전략적협력 동반자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에 의견을 일치하였다. 원총리는 회견중, 중국은 대한국관계의 발전을 주변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한국과 함께 대세와 미래를 착안하며,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국민에게 이익을 창조하며, 지역 평화와 번영을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원총리는 한국 정운찬 국무총리와 김형오

국회의장과 회담하였고, 한국경제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서울중국문화센터를 참관하였다.

5월 29일, 제3차 한중일정상회담이 제주도에서 거행되었으며, 중국 원자바오 총리, 한국 이명박 대통령,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참석하였다. 회의 당일 3국은 <3국 협력 비전 2020>를 채택하였고, 협력관계를 승격하여 공동번영 실현 등에 대한 많은 의견 일치를 달성했다고 발표하였다.

6월 11일, 타슈켄트에서 상해협력기구 회원국정상회의 제10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라흐모노프 타지키스탄 대통령,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키르기스스탄 대표가 참석하였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실무적인 협력심화, 평화안정유지>를 주제로 연설하였으며, 상해협력기구 구조안에서 협력심화에 대한 중요한 의견을 제기하였고, 중국은 상생·개방 전략을 고수하고, 각국과 함께 이 지역의 평화유지와 공동번영의 새로운 성과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표하였다. 회의에 이어서 이 지역내 모든 형식의 테러리즘을 공동 타격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6월 12일, 키르기스스탄공화국 오쉬에서 발생한 민족분쟁으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현지 수천명의 중국인들이 조속히 귀국하길 요구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외교부 등 유관부서가 교민철수 업무와 국민의 무사귀환을 보장하라고 지시하였다.

중국정부는 응급조치 시스템을 가동하고 외교부가 앞장서 다부서 연합대책본부를 설립하였다.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중국정부가 급파한 전세기 9대로 교민 1,317명이 무사히 귀국하였다. 중국정부는 솔로몬제도 폭동, 동티모르 폭동, 레바논·이스라엘충돌, 통가 폭동, 차드무장 충돌, 태국 반정부사태 및 아이티지진 당시 전세기를 급파하여 교민 철수한 것은 해외자국민보호 응급조치 시스템이 날로 완벽해질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의 인본주의와 국민을 위한 외교행정의 이념이 더욱 돋보인다.

7월 2일, 중국 국가재난방지위원회 및 전국재난예방구조 합동사무실은 민정부, 국토자원부, 교통부, 철도부, 수리부 등 각 부처 관계자들을 소집하여 최근 중국 남방지역의 홍수재해와 상반기 자연재해 상황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하였다. 중국 민정부 재난구조국 보도에 따르면, 6월 중순부터 7월 1일까지 폭우로 인한 홍수는 절강, 복건, 강서, 호북, 호남, 광둥, 광서, 중경, 사천, 귀주, 운남 등 11개 성·시가 피해를 입었고, 4,404.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사망 266명, 실종 199명, 긴급이주민 382.8만 명, 농작물 피해면적 2,476.4천ha, 무너진 가옥이 31.2만채, 경제적 손실 645.7억 위안 등 커다란 손실이 발생하였다.



총영사관 뉴스

4월 16일,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영사 전체가 자발적으로 중국청해성 옥수현 지진 이재민을 위해 헌금하였다. 4월 21일, 총영사관은 조기를 계양하였고, 전 중국 국민과 함께 옥수 지진 피해자들을 향해 애도하였다. 광주화교협회와 광주·제주 지역의 많은 화교들과 유학생들이 분분히 헌금하였고, 5월 20일까지 총영사관이 받은 헌금은 한화 6,645,000원, 인민폐 5,079원, 미화 157원에 달했다.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 강박원 전 광주시의회위원장, 김선홍 광주시국제지문대사, 송동석 한중문화협회 광주지회장 등 한국 우인들도 옥수지역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이재민에게 위문을 보냈다. 한국 호남대학교의 중국, 한국, 미국, 일본 교수들도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헌금을 기부하였다.



4월 18일, “중국만명노인인행광주” 행사가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개막되었다. 중국노인관광연합회장 장문 이사장, 중국〈노년보〉신문사 손립인 사장이 중국노인관광단을 인솔하여 참가하였고, 염봉란 총영사도 참석해 축사를 하였다. 당일, 중국에서 온 평균 연령 65세의 1,100명 노인들은 죽마춤, 패션쇼 및 소수민족 전통춤 등 훌륭한 공연을 펼쳤다.



4월 28일, 총영사관은 재한중국국민에게 전면적이고 정확하며 신속한 법률상담과 원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현지 중국 변호사 및 변호사사무소를 총영사관의 법률 고문으로 지정하였고, 염봉란 총영사는 광주 정도 법률사무소와 정의법률사무소 남정에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5월 4일, 상해엑스포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총영사관은 광주중국문화원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40여명의 한국 초등학생들을 위해 “총영사관의 날” 행사를 가져 그들에게 상해엑스포를 소개하고 중국 애니메이션을 방영해 주었다. 아이들과 함께 상해엑스포의 개막을 경축하면서 어린이날을 즐겁게 보냈다.

6월 16일~18일, 전 중국외교부장이며 중국국제우호연락회 리자오싱(李肇星)회장은 서울을 이어 제주도를 방문하였다. 새로 당선된 우근민 제주도지사 내외와 한중문화협회 김수운 제주지회장 등과 화견을 가졌다.



6월 28일, 광주화교협회가 제 22기 손선국 회장 취임식을 거행하였고, 염봉란 총영사 및 광주시 경찰청 김진희 과장 등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손회장은 화교와 화교협회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총영사관에 감사해하였고, 염총영사는 화교협회가 화교들과 현지시민들의 화합과 중한양국 우호호진에 공헌하기를 격려하고 총영사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을 다짐하였다.

중국경제무역정보

국가에너지국 : 중국 5월분 전국 전기사용량 20.8% 증가

중국 〈재경〉지가 국가에너지국에서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금년 5월분 중국 전국 전기사용량이 3,480억kwh, 전년도 동기 대비 20.8%가 증가하였고, 증가폭이 4월보다 0.23%로 약간 하락했으며, 대체로 고위운행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이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1~5월분 전국 전기 사용량이 16,575억kwh이고 23.3%가 증가하였다.

철도부 금년 고속철도 건설에 7,000억 위안 투입 예정



중국 〈재경〉지의 보도에 따르면 철도부는 금년 고속철도 건설에 7,000억 위안, 약 115.5조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새 노선 4,613km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 중국에서 운영중인 고속철도는 이미 6,552km에 달하고, 고속철도 기술은 이미 세계적으로 앞장서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5월분 자동차 생산·판매 모두 하락

중국 자동차 생산·판매량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750만대를 초과하였고, 5월 생산 판매량은 각각 141.66만대와 143.83만대로 작년 동기보다 27.86%와 28.35%로 모두 증가하였지만 4월보다 9.39%와 7.50%씩 하락하였다고 중국 〈재경〉지가 보도했다. 5월 말까지 중국 자동차 기업 재고량이 51.34만대로, 4월보다 3.41만대 감소하였고, 연초보다 7.36만대가 줄었다. 5월 자동차 수출은 4.71만대로 4월보다 18.51%로, 작년 동기 대비 95.99%가 증가하였으며, 1월부터 5월 수출 총계는 19.09만대로 작년 동기 대비 71.01%가 증가하였다.

국제무역 인민폐 결산 실험지 확대 추진

중국신화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이 최근에 이미 국제무역 인민폐 결산 국내실험지를 흑룡강 등 20개 성까지 확대 지정할 것을 결정하였고, 동시에 해외 실험지를 모든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시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행은 빠른 시일내에 발표·실시될 것이다.



2010년 중국 상하이로 가서 EXPO를 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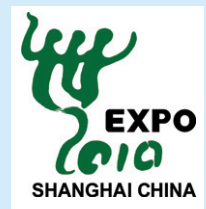


4월 30일 저녁, 전 세계가 주목하는 '2010 상하이엑스포' 개막식이 상하이엑스포문화센터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는 2005년 일본 아이치 엑스포에 이어 5년만에 개최되는 가장 높은 등급의 등록엑스포(종합엑스포)이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참석하였고, 184일 일정의 상하이엑스포의 정식개막을 선포하였다. 상하이엑스포는 북경올림픽 이후에 중국에서 개최되는 또 하나의 국제행사이다. 이번 엑스포의 주제는 "더 좋은 도시 더 좋은 삶"으로, 세계 각 참가국들은 전시, 포럼, 공연 등의 방식으로 도시의 미래발전 이념에 대하여 함께 연구 토론하며 인류의 아름다운 미래를 마음껏 상상하게 된다.

한국 이명박 대통령,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EU위원회 바로조 집행위원장 등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7월 8일까지 상하이엑스포 관광객수가 이미 2,460만명을 달했으며, 이번 엑스포 총 관광객이 7,000만명을 돌파하여 세계엑스포 150년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경제올림픽으로 치러질 전망이 되고 있다. 박준영 전라남도지사와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관하였다.

상하이 엑스포 개요

- **행사기간** : 2010년 5월 1일 ~ 10월 31일 (총 184일간)
- **마스코트** : 상하이엑스포의 마스코트인 "항이마오(海寶)"는 "바다의 보물"이라는 뜻으로 한자 "人"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것이다. 푸른색은 해양·미래·과학기술 등을 상징하며 엑스포 주최도시인 상하이의 도시 특징에 부합되고 이번 엑스포의 테마와도 부합된다.
- **엠블럼**
중국한자 "世"를 형상화하고 그린 도안이다. 세 사람이 서로 팔짱을 끼고 있는 광경으로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나타낸다. 아울러 인류의 번영과 아름답고 조화로운 삶에 대한 추구하고 엑스포의 가치이념인 "이해·소통·협력"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2010년 중국상하이 엑스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본위" 사상의 구현이다.
- **테마** 상하이엑스포의 테마는 "Better City, Better Life"이다. 사람·도시·환경이라는 세 측면에서 도시와 생활의 연관성을 "人"의 측면에서 탐색한다는 것이다.
- 엑스포를 위한 중국 정부의 예산투입 : 286억 위안, 약 42억 달러



城市,让生活更美好
Better City, Better Life

상하이 엑스포 주요건물

녹색성장·환경보호 중점 '테마관'

상하이 엑스포 테마관은 엑스포 주요 구역으로 배정된 B구역내 엑스포 축(軸)의 서쪽에 위치해 있다. 이 테마관은 상하이의 독특한 '우물이 있는 골목길'을 뜻하는 '리농(里弄)'과 상하이의 전통적인 '다락 창' 스타일의 '라오후창(老虎窗)'에 둘러싸여 2차원 평면과 3차원 입체구조로 지어진다. 지상 면적 8만㎡에 지하 면적 4만㎡에 이르는 테마관은 녹색·에너지 절약·환경보호 전시관 등으로 나뉜다.



가장 중요한 영구 전시장 '엑스포 센터'

상하이 엑스포 단지의 B구역 강변 녹지대에 들어서는 이 엑스포 센터는 동서 길이가 350m이고, 남북 넓이는 약 140에 이르는 이 센터의 연건평은 14만여㎡에 달한다. 이 센터는 엑스포 개막일보다 5개월 앞선 2009년 연말까지 완공되어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이곳은 엑스포의 가장 중요한 영구 전시장으로 엑스포 기간동안 엑스포의 운영지휘센터·뉴스센터 및 포럼활동센터로 유용하게 활용된다.

중국 최초 혁신적 공연시설 '엑스포 공연센터'

엑스포 공연센터는 엑스포 단지의 남동쪽 즉 엑스포 축(軸)의 동쪽 위치한다. 총 건축면적은 지상 건축면적 45,000㎡에 지하 건축면적 35,000㎡ 총 80,000㎡에 이른다. 안에는 대형 중앙무대를 주축으로 18,000여석 규모의 대형 다기능 실내공연장소와 공연 관련 부속 시설들이 들어선다. 좌석은 공연 성격과 예상 관중 수에 따라 4,000석·8,000석·12,000석·18,000석 등으로 융통성있게 나눌 수 있다.



중국관

중국관 건축외형은 “동방지관(東方之冠)”을 주제로 중국문화정신과 충격을 표현했다. 중국 고대 목조 건물 건축양식 중 하나인 “두궁(斗拱)”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기둥 위에 놓여서 지붕의 하중을 원활하게 기둥에 전달하며, 지붕을 높여 주고, 건물을 장식하는 역할을 한다. 건물 색깔은 역시 중국 전통건축 양식에 사용돼 온 독특한 컬러인 “꾸궁홍”이 사용돼 중국문화의 정신과 기질이 함축되어 있다. 길이 140m, 높이 69m에 달하는 중국관은 엑스포회장 어느 곳에서도 보이는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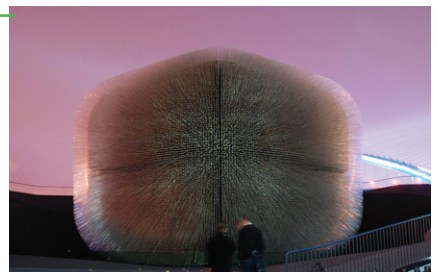


한국관

“매력적인 도시, 다채로운 생활”을 주제로 한 한국관은 예술화된 한글자모를 이용해 한국 건축의 특색을 표현하고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미래 도시를 지향한다.

영국관

특이한 점은 사방으로 뻗어 있는 촉수이다. 그 끝에는 빛을 내는 작은 촉수가 있어 건물 외부를 덮고 있다. 가벼운 바람이 불면 관 외부는 형형색색으로 빛나며 여러 가지 모양을 나타낸다.



아프리카연합관

수목·사막·갈매기·스포츠·건축 등 강렬함을 가진 아프리카 대륙의 특징적 요소들은 아프리카의 다양한 풍경과 아프리카 고대문명과 왕성한 생명력을 보여준다.

중국의 품질 관리감독 사업



이미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 "Made in China"가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오늘. 하지만 "중국산"이란 저질품의 대명사라는 오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연 중국은 품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중국정부는 품질 관리감독 사업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및 시장경제체제의 건립과 보완, 그리고 세계경제에 편입된 과정에 발맞추어 품질 관리감독 사업은 날로 중국경제와 사회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1988년 중국국가기술감독국이 설립되었고 1998년 국가품질기술감독국으로 개편되었다. 2001년 중국은 품질기술감독 및 출입국 검역부서를 "국가질검총국(國家質檢總局)"으로 합병시켰다. 이는 전국의 품질, 계량, 출입국상품 검증검역, 그리고 이에 대한 집행역할을 담당하는 장관급 기관이다. 또한 2003년에 중국은 위생부 소속, 전국 식품, 보건품, 화장품 및 약품의 품질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인 "국가식품약품감독총국"을 설립하였다.

중국은 품질관리감독에 대한 입법을 매우 중요시한다. 1993년 2월 <산품질량법(產品質量法)>이 통과되었고, 2000년 7월 수정되었다. 중국은 <식품위생법>, <계량법>, <국경위생검역법>, <수출입상품검증법> 등 많은 전문 법률을 제정하였다.

중국소비자협회는 1984년 12월에 설립되었고, 1987년 9월 "국제소비자연맹"에서 정회원으로 인정받았다. 1991년부터

중국 중앙방송(CCTV)은 매년 3월 15일 "국제 소비자의 날"에 즈음하여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송하여 상품 품질에 대한 사기 내막을 폭로시켰으며, 수많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었다.

사회변혁중이며 개발도상국인 중국은 품질관리감독체제가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는 것을 인정한다. 일부 불법상인들이 이윤추구를 위하여 상업도덕을 어기고 가짜나 저질품을 대량 생산하며 시장에 유통시켜 중대한 품질안전사고를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국내외 소비자들이 중국상품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Made in China"의 전체 명예도 훼손되었다.

하지만 중국상품 모두가 저질품이거나 중국상품으로 발생한 모든 품질문제가 전부 중국의 탓이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미국 모 회사가 전세계적으로 중국산 아동 완구 수천만 개를 리콜했는데, 그 중 85%는 중국공장이 미국측이 제공한 기술표준대로 생산한 것이었다. 그 후,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관련 검증 기준을 조정했기 때문에 이른바 "중국산 완구 유해물질 대량 검출" 문제가 나타났다. 일본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소위 "중국 농약 만두" 사건은 공장 직원이 노사분쟁 때문에 앙심을 먹고 만두에 농약을 넣어 보복한 것으로 우발적 형사범죄 사건이었다. 또한, 한국의 일부 탐욕이 많은 수입상인들이 일부러 중국에서 가짜나 저질품을 수입하고 한국 시장에서 판매하는데 한국의 언론과 소비자들이 이런 가짜나 저질품에 대한 원망과 질책을 전부 중국 측에만 가한 것이다.

세계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무역대국인 중국은 국내외 각계가 중국산 상품의 품질에 대한 감독과 호의적 비평을 받아들이고, 세계 각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며, 가짜나 저질품의 생산과 유통을 엄격히 타격할 것이다. 동시에 외국 소비자들이 "중국산" 제품의 품질문제를 정확하고 공정한 시선으로 보기 바란다.

중 · 한 교류

효녀 심청(沈淸)과 중국



한국 고전 소설의 명작인 <심청전>과 판소리 <심청가>의 주인공인 심청은 한국 민간에서 면면히 전해 내려오면서 칭송받은 효녀이기도 한다. 하지만 <심청전>이 역사상 실존 인물을 모델로 창작한 작품인 것을 알고 있는가? 그 원형이 바로 전라남도 곡성군의 만고효녀(萬古孝女) 원홍장(元洪莊)이다.

원홍장이 장님 아버지가 길러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흥법사에 자신의 몸을 시주했다. 그러자 주지 성공법사는 그녀를 백제에 와서 장사를 하던 중국 절강 출신의 부유한 상인 심국공(沈國公)에게 팔아 넘겼다. 심국공은 그녀를 처로 맞이하고 자신의 고향 중국 보타(普陀) 심가문(沈家門)으로 데리고 돌아갔으며, 원홍장의 이름을 "심청"으로 고쳐 불렀다. 심청은 중국에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고국에 있는 장님 아버지를 한시도 잊지 않아 결국 그녀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500여 개의 관세음 불상을 만들어 백제로 보내는 정성을 보였다.

원홍장이 장님 아버지가 길러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흥법사에 자신의 몸을 시주했다. 그러자 주지 성공법사는 그녀를 백제에 와서 장사를 하던 중국 절강 출신의 부유한 상인 심국공(沈國公)에게 팔아 넘겼다. 심국공은 그녀를 처로 맞이하고 자신의 고향 중국 보타(普陀) 심가문(沈家門)으로 데리고 돌아갔으며, 원홍장의 이름을 "심청"으로 고쳐 불렀다. 심청은 중국에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고국에 있는 장님 아버지를 한시도 잊지 않아 결국 그녀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500여 개의 관세음 불상을 만들어 백제로 보내는 정성을 보였다.

최근 중·한 양국 학자들은 심청이 이주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중국의 지역에 대해 연구했는데, 그 결과는 절강성 주산시 보타구 심가문진(浙江省 舟山市 普陀區 沈家門鎮)이다. 심가문진은 진(晉)나라 시기 이미 심씨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곳으로 문헌중에 기재된 심국공의 고향과 대단히 비슷하다. 심수도(沈水道), 고려도두(高麗道頭), 수정궁(水晶宮), 신라초(新羅礁)를 비롯한 주변에 있는 많은 지명이 심청이 여기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이 천여년 전의 국제 인연이 오늘 중·한 우호교류의 천연적 역사의 유대가 되었다. 2000년, 한국 연세대 심청학술연구팀과 전라남도 곡성군 교류방문단이 3차례 보타구를 방문하고 학술 교류를 진행했다. 2001년에 보타구와 곡성군이 자매결연 관계를 맺었고, 2002년 보타구 대표단이 곡성군을 방문했다. 2005년 5월 보타구는 심청을 기념하는 "심원(沈院)" 건설에 착공하고 2007년 1월 준공·개원했다. 이는 부지 면적 17,000평방미터의 테마파크로 "해로청(海路廳)", "효녀관(孝女館)" 등의 건물들이 세워져 심청과 심국공 당시의 생활 모습과 중국 진나라 시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준다.



한국에 있는 중국인

광주·전남지역 중국 유학생 한국어 응변대회



에 대해 강연을 했다. 정중하거나 유머스러운 강연이 때때로 심사위원들과 학생들로부터 웃음과 박수를 자아냈다.

대회는 긴장하고 치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최종 6명 유학생이 각기 1,2,3등 상과 격려상을 수여받았으며 중국총영사관, 남부대학, 한·중우호단체와 화교에서 제공한 상금 총 200여 만원을 받았다.

총영사관 염봉란 총영사는 이번 대회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총영사관 오경보, 손소화 부영사가 행사에 참석하였다.

6월 12일, 중국 유학생의 한국어 실력 향상과 각교 유학생간의 교류증진을 위하여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재한중국유학생연합회 광주·전남지회와 한국 남부대학의 공동주최로 제3회 광주·전남 중국유학생 한국어 응변대회가 열렸다. 광주·전남 지역 12개 대학교에서 온 200여명의 중국유학생 및 한국 교수가 참석하고 응원하였다. 한국에서 공부한지 1~4년 된 20명의 선수들은 각각 유학 경력과 한국 생활경험을 바탕으로 혹은 유창하고 혹은 미숙한 한국어로 현장 내빈들에게 중국문화를 소개하고 중·한 양국의 민간왕래를 묘사하며 자신이 부딪쳤던 문화 차이와 해법에 대해 강연을 했다.



지역 중국유학생 빛고을타운서 봉사



6월 4일, 재한중국유학생연합회 광주·전남지회 소속 중국학생은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봉사활동을 선사했다. 그들은 노란색 조끼를 입고 어르신들에게 좌석을 안내하고 배식을 도와 주었으며, 물리치료실에서 어르신들의 안마 봉사과 말벗이 되어 주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중국유학생은 광주대, 호남대, 광주여대 등 16명으로 기말고사 준비 등 바쁜 틈에도 스스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이었다. 유학생회 측은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남매일〉 6월 8일 보도

중국의 매력

중 국 자 장 면

자장면은 중국민간 가장 특색있는 전통요리의 하나이며, 북경, 산둥, 산서, 허북, 상해, 동북지역에는 각기 다른 자장면 요리법이 있지만 특히 중국화북지방의 북경자장면은 최고로 여겨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老북경자장면”이라고 칭한다. 이른바 자장면은 중국식 춘장과 된장을 잘게 썬 고기와 감자, 건두부 등에 넣어 기름에 볶고 다시 각종 채소들과 같이 면위에 얹고 비벼서 먹는 일종의 면요리이다.

한국 자장면의 역사는 현재엔 비록 정확하게 구체적인 출처를 말하기가 어렵지만, 약 10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청나라가 인천에 조계지를 설립한 이후에 주군들을 따라 많은 산둥 출신의 중국인들이 한반도에 들어왔다. 그들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인천은 번영한 무역항구가 되었고 일부 중국인들은 식당을 열어 동포들에게 맛있고 든든하며 먹기 편한 요리를 제공했다. 그게 바로 고향 맛의 자장면이었다. 갑오개혁(甲午更張) 이후, 일부 화교들은 조선에 남는 것을 선택하였고 그 중 대부분이 음식점 종업자였다. 그들은 한반도 주민들의 입맛에 따라 자장면을 개량시켰는데 설탕과 고추 등을 넣었다. 현재 한국 각지 자장면의 맛은 대략 19세기의 마지막 5년쯤에 이루어졌으며 화교들에 의해 창조되었다.

중국자장면과 한국자장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자장면의 “炸醬”이 중국식 황두된장과 소량의 춘장을 사용하여 만들며 맛은 비교적 짭짤하고 진하다. 반면 한국 자장면은 한국식 춘장을 사용하여 달고 담백한 맛이다. 중국에 간 한국인들이 중국자장면을 먹을 때 한국에서와 같이 많은 양의 “장” 소스를 끼얹게 되면 너무 짜서 중국자장면의 참 맛을 볼 수가 없게 된다. 만일 당신이 중국식 자장면을 먹을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소스를 조금만 얹기를 주의드린다.

요즘 중국 북경, 상해 등 지역에 많은 한국식 자장면 식당이 들어섰고, 중국에 있는 한국인들은 물론 많은 중국인들도 한국자장면의 맛을 좋아하게 되어 당대 중·한음식문화 교류의 독특한 풍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장면전〉 한양대 양세욱 교수



총영사관공고

본 총영사관은 지역민들의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국과 중국어를 사랑하는 지역민에게 학습의 장,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오는, 2010년 7월 30일 14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제7회 총영사관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 주요내용은 중국 영화 <공자>(孔子) (언어: 중국어, 자막: 중국어) 를 방영할 예정이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환영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2010년 7월 6일부터 25일까지, 신청서(성명, 성별, 직업, 주소, 연락처 등 내용 기재)를 작성하고 gzzlg2010@gmail.com 메일로 본 총영사관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장이 협소한 관계로 신청하신 순서대로 30분의 신청자에 한하여 회신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회신문을 받으신 분께서는 시간을 엄수하시어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총영사관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19-6번지 (우 503-230)

중국 비자, 여권, 공인증 문의 : 062) 351-8857

영사 면담, 방문 예약 : 062) 385-8874

영사 보호 담당 : 062) 385-8873

팩 스 번 호 : 062) 385-8880

홈페이지 : <http://gwangju.china-consulate.org/kor/>

총영사관 소식지 홈페이지
<http://gwangju.kr.china-embassy.org/kor/zt/kanwu/>

